

소리·춤·장엄 등 전문화 마당

영산재 기능보유자 분야 세분화 여론

영산재 기능보유자의 분야가 세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불교음악계 내에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11월 4일 구해스님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 작법·장엄 등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보유자 지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1인 보유자 체제로는 제대로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영산재의 올바른 전승을 위해 범패·작법·장엄의 분야별 보유자 지정은 기본이고 여기에 다시 각 분야별로 세분화해 전문인력 양성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음악계의 대세적인 의견이다.

더구나 이 같은 요구와 지적에 대해 문화재청이 '비효율적이고 무리'라는 입장을 보여 행정 편의적인 접근이라는 반응이다.



영산재의 여덟번째 단계인 '식당작법'에만 최소 20명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사진은 모든 영혼에게 부처님의 법식을 베푸는 '식당작법' 재현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무용연구소장 변형 스님(영산재 이수자)은 영산재를 제대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작법·범패·장엄의 세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작법의 경우는 바리·나비·타주·범고춤으로, 범패의 경우도 안채비·바깥채비·훑소리·깃소리로 나뉘어 한다는 것이다. 변형 스님은 "더 세분화시켜 본격적으로 연구·전승하지 않으면 영산재 원형 보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까지 제기했다.

스님은 "깃소리만 해도 15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곡마다 완창하는데 1시간씩 걸린다"며 "영산재를 체계적으로 전승보존하기 위해 음악은 음악대로 무용은 무용대로 세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일운 스님(옥천범음대학 학장) 역시 같은 의견이다. 스님은 "인천지지문화재를 보면 나비춤과 바라춤이 나뉘어 지정돼 있다"며 "범패든 작법이든 각각의 소리와 춤이 따로 보유자가 지정돼서 보다 전문적으로 원형보존을 위해 연구하고 전승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판소리 다섯 마당이 각각 보유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영산재도 다섯 분야로 나뉘 보유자를 지정해 전승에 힘써야

(불교음악계)
각 곡 원창만 1시간이상 걸려 분야별 나눠 전문인력 양성 판소리 다섯 마당이 좋은 예

한다"고 정오 스님(영산재 이수자, 천축사 주지)도 한 목소리를 낸다.

영산재보존회의 세분화 요구에 대해 문화재청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체 종목으로 지정된 영산재의 경우 영산재보존회 소속 스님들이 모두 문화재인 것이나 마찬가지로는 시각이다.

류준규 연구원(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영산재를 판소리와 많이 비교하는데 판소리는 심청가 놀부가 등이 각각 지정됐다가 합쳐진 것으로 개인 종목이기에 무형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보유자와 조교가 많은 분야"라며 "단체 종목인 영산재는 의식을 시연하는 모든 이들이 단체로 지정하여 보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 종목은 개인 보유자를 굳이 지

(문화재청)
"영산재는 단체 종목이므로 보존회 소속 모두가 문화재" 내용 비슷해 나눌 필요없어

정하지 않아도 문화재보호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단체의 사기 문제를 고려해 지금처럼 의식을 이끄는 보유자



영산재의 네가지 작법 중 하나인 나비춤. 현대불교 자료사진

만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했던 홍윤식 교수(동국대 일반화연구소장)도 영산재 기능 세분화에 따른 다수의 보유자 지정 요구는 무리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홍 교수는 "시연되는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영산재로 대표성을 준 것으로 충분하다"며 "영산재를 세분화해 보유자를 더 내거나 상주관공 시왕각에 영산재 수록재 예수재 등 다섯 마당으로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 영산재 어떻게 이뤄져 있나?

성악인 범패와 무용인 작법무등 13단계로 구성

영산회상을 재현해 영혼 천도와 중생 제도를 실현하려는 불교 의식 영산재는 13단계로 진행된다. 전체를 다 시연할 경우 꼬박 하루가 걸린다.

영산재의 13단계는 ▲시련(施鞭)-불보살 및 천도할 영혼 모시기 ▲대령(街靈)-영혼에게 무명과 업보를 깨우치도록 불발 일러주기 ▲관유(灌浴)-삼독(三毒)으로 더럽혀진 입장을 녹이는 목욕 ▲조전점안(造錢點眼)-영혼이 저승서 지닐 금은전과 경합(經函) 점안·이운의식 ▲신중작법(神衆作法)-도량을 옹호하는 신중 모시기 ▲괘불이운(掛佛移運)-야의 괘불단 설치 ▲상단권공(上壇勸供)-영산회상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 올리기 ▲식당작법(食堂作法)-모든 영혼에게 부처님의 법식 배풀기 ▲운수상단권공(雲水上壇勸供)-상단 불보살전에 공양 올리기 ▲중단권공(中壇勸供)-명부의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 심대명왕 등에게 공양 올리기 ▲신중퇴공(神衆退供)-신중전에 공양 올리기 ▲관음시식(觀音施食)-지옥과 중생을 불법승 삼보에 귀의시키기 ▲봉송(奉送) 및 소대의식(燒臺儀式)-상단의 불보살, 중단의 신중, 하단의 고혼 순으로 모시고 소대로 나가 봉송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 의식들은 불교성악인 범패와 불교의식무용인 작법무로 진행된다. 범패는 안채비 바깥채비 훑소리 깃소리로, 작법은 바리춤(7가지) 나비춤(18가지) 타주춤 범고춤으로 나뉜다.

■ 영산재 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일지

-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지정. 당시 범패의 운공·송암·벽음 스님이 최초로 무형문화재가 됐다.
- 1982년 운공 스님 입적
- 1987년 영산재 단체 지정. 영산재보존회가 영산재 관리 단체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범패 장엄 작법무 분야를 세분화해 장엄 부문에 지장 스님, 작법 부문에 일운 스님 등이 각각 보유자로 지정됐다.
- 1996년 지장 스님 입적
- 2000년 송암·벽음 스님 입적
- 2003년 일운 스님 입적
- 2005년 범패 부문 구해 스님 보유자 지정
- 2005년 현재 전수교육조교는 일운·기봉·송강·경암·동주·동희 스님.

■ 무형문화재 심사 과정 및 절차

의견수렴·문헌·현지 조사 거쳐 전문가가 기량평가 문화재위원회 통과 30일간 예고 후 최종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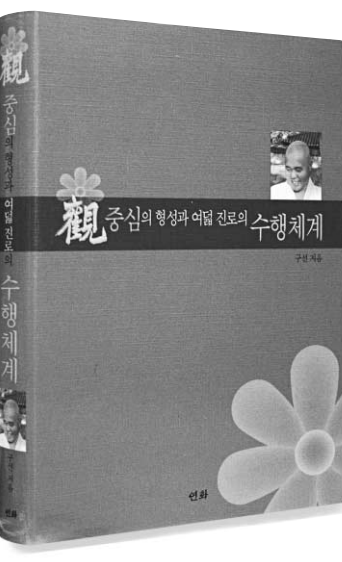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과가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한다. 무형문화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는 모두 여섯 가지. 한 사람의 보유자가 탄생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문헌·현지조사 등 1차 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올려 지정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조사전문가 기량평가 대상자 선정도 이때 이루어진다. 지정조사는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위원·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맡는다. 조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소위원회도 구성, 관리감독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는 기·예능의 실연내용과 전승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해 평가한다.

지정조사가 완료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재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에서 통과하면 30일간의 예고 과정을 거친다. 이 기간동안 이의제기가 발생하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이루어진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된다.

한 가지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되기까지 개인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떻게. 우선 각 분야에서 교육이나 일대일 전승을 통해 기·예능을 배운다. 그 이후 전수자로 5년, 이수자로 3년 등의 과정을 거쳐야 전수교육조교 후보가 될 수 있다. 전수교육조교로 지정되면, 이들이 이후 보유자 지정시 후보가 될 수 있다.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 구선 지음 / 312쪽 / 값 18,000원

한 경계에 집착하면 그 죄가 수미산 같고, 한 경계를 쳐버리면 사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러할 때 그 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그래서 나와 경계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맞출 수 있다. 수행자라면 한 경계를 통해 여덟 진로의 수행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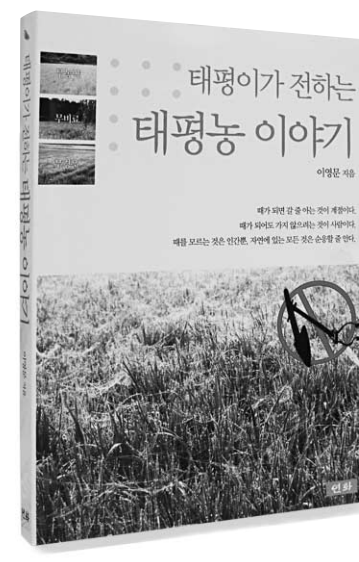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바퀴의 살이 하나만 빠져도 바퀴 전체가 찌그러지듯이,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는 필자가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이며, 또한 팔 년 동안 후인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결과들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뒤에서 체득할 수 있는 법들이다. 수행자가 비록 자성의 공(空)함을 인식했다라도 이처럼 여덟 가지 진로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제도하는 것과 주변 경계와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여덟 가지 일로서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파기운 질책을 가한다. 특히 수행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또 다른 존재와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한다.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한다. 목전에 처해진 한 경계를 그냥 도외시 하지 말고 그를 통해 여덟 진로로 자기를 발전시켜 갈 것을 주장한다.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 이명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깨달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성도 외딴 곳 별학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명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삶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